

나 인신강세(人身降世)의 천계관(天界觀)

Incarnational View of the Heavenly Realm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대순사상의 천계관, 즉 상제의 인신강세와 이에 따른 하늘(천계)의 세분화 특징을 고찰한다.

- 천계의 중첩적 구조
9개 이상 중첩된 하늘의 구조와 상제의 인신강세
- 상제와 천지신명의 역할
뇌성의 의미와 천지 창조, 회산과 청령의 체계
- 전통적 천관과의 차이
동양의 내재천, 서양의 초월천, 그리고 천외천의 개념 확장
- 묵은 하늘과 새 하늘
하늘의 변화 및 개혁, 자생적 근대성/탈근대성의 실현

천계의 구조: 9개 이상의 중첩된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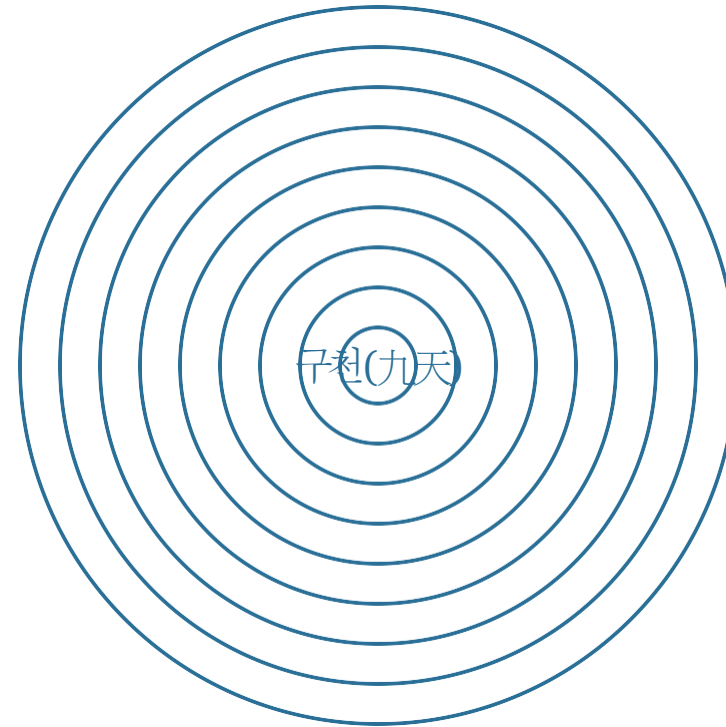
김 송환(金松煥)이 상제께 여쭙기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나йка."

상제께서 "있느니라"고 대답하시니라.

또 그가 여쭙기를 "그 위에 또 있나йка."

상제께서 "또 있느니라"고 대답하셨도다. 이와 같이 아홉 번을 대답하시고 "그만 알아두라"고 이르셨도다.

- 대순사상에서는 9개 이상의 하늘이 중첩되어 존재함을 시사
- 하늘 밖의 하늘 (구천)과 천지인으로 구분된 하늘
- 각 천계의 독립성과 연결성을 동시에 내포 궁극적
- 으로는 상제에 의해 통솔되는 질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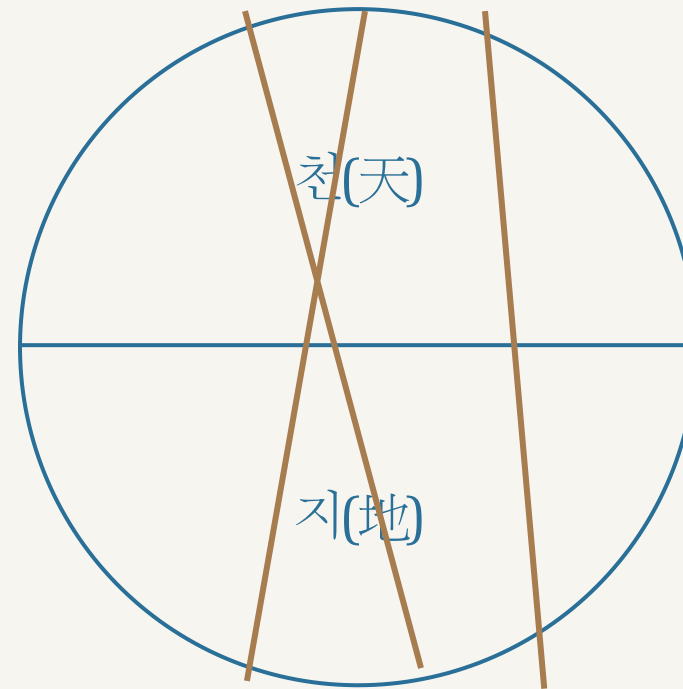


구천응원뇌성 보화천 존강성 상제: 뇌성의 의미와 천지 창조

뇌성(雷聲)이라 함은 천령(天令)이며 인성(仁聲)인 것이다. 뇌(雷)는 음양이기(陰陽二氣)의 결합(結合)으로써 성뢰(成雷)된다.

뇌(雷)는 성(聲)의 체(體)요, 성(聲)은 뇌(雷)의 용(用)으로써 천지(天地)를 나누고 동정진퇴(動靜進退)의 변화(變化)로 천기(天氣)와 지기(地氣)를 승강(昇降)케 하며 만물(萬物)을 생장(生長)하게 하고 생성변화(生成變化) 지배자양(支配滋養)함을 뜻함이며

- "천지를 나누고" - 천지가 상제에 의해 뇌성으로 나누어져 만들어짐
- "천기(天氣)와 지기(地氣)를 승강(昇降)케 하며" - 천계와 지계의 상호작용
- "만물(萬物)을 생장(生長)하게 하고" - 천지의 화육과 만물의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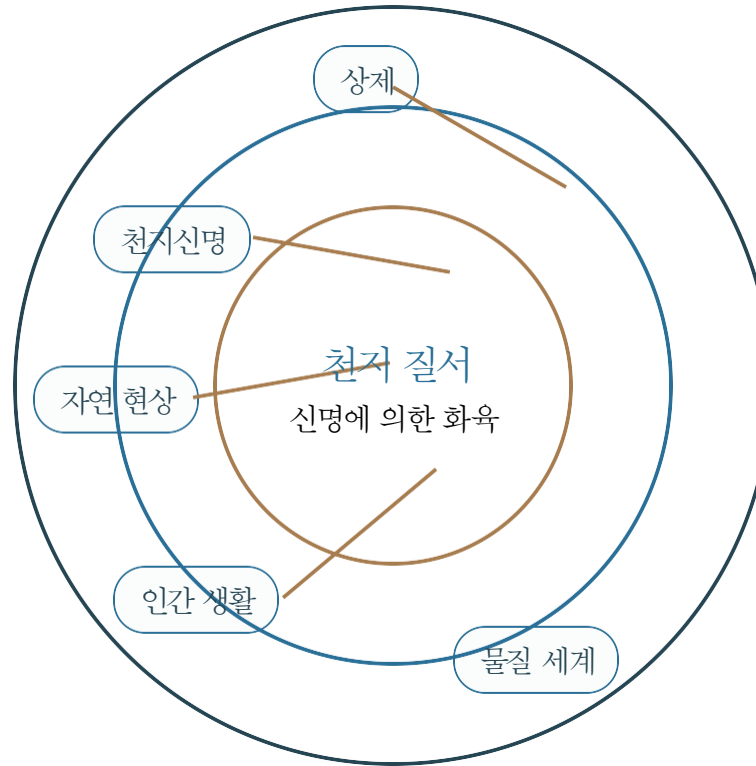
음양이기(陰陽二氣)의 결합(結合)으로 뇌성(雷聲)이 천지를 창조하고 조화함

천지 운행의 체계: 신명의 역할

상제께서 종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가라사대

"칠 산(七山) 바다에서 잡히는 조기도 먹을 사람을 정하여 놓고 그물에 잡히며 농사도 또한 그와 같이 먹을 사람을 정하여 놓고 맺느니라. 굶어 죽는 일은 없느니라"

- 인간의 **길흉화복**을 포함한 천지의 운행이 신명에 의해 결정됨
- 천지신명이 **우주 질서**를 유지하고 만물의 생성과 분배를 주재함
- 자연계의 작은 현상(조기의 어획)까지도 **신명의 질서 체계** 안에서 이루어짐
- 이러한 천지 체계가 상제에 의해 **조화되고 통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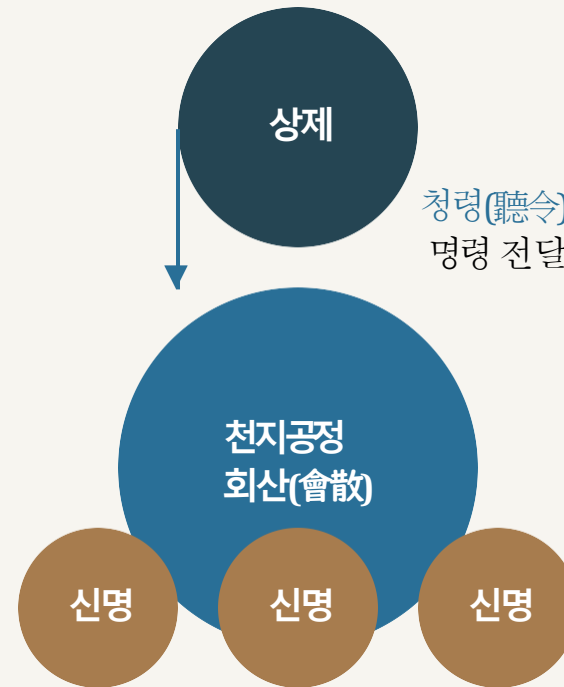
천지신명의 회산과 청령

상제께서 하루는 김 형렬에게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仙境(後天仙境)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

고 이르시고 그에게 신안을 열어 주어 신명의 회산과 청령(聽令)을 참관케 하셨도다.

- 회산(會散): 천지신명이 모였다 흩어지는 모임으로 상제의 뜻을 전달받는 체계
- 청령(聽令): 천지신명이 상제의 명령을 듣고 수행하는 과정
- "천지의 조화로 풍우를 일으키려면 무한한 공력이 드니 모든 일에 공부하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



묵은 하늘과 새 하늘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핏절하여 살아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 되느니라"

상제께서 공사를 끝내시고 가라사대 "간신히 연명은 되어 나가게 하였으되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여 배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달하리라"

- 하늘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묵은 하늘이 될 수 있음
-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어 개혁이 필요한 상태
- 상제께서 사흘 동안의 공사를 통해 하늘을 뜯어고침
- 하늘의 변화와 개혁은 상제의 의도에 따라 진행됨



→ 상제의 공사



천계의 개선과 변화를 통한
만물의 조화로운 화육

결론: 기존 천관과의 차이점 및 의의

동양의 천관

- 내재천: 우주 내부에 존재하는 하늘
- 성리학 이후 천외천 개념 은폐

서양의 천관

- 초월천: 우주를 초월한 하늘
- 근대에 이르러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부정

대순사상의 천관: 천외천(天外天)의 개념

- 기존 하늘을 인정하되 낮은 하늘(목은 하늘)로 보고 새 하늘로 교체
- 가종(加宗)의 개념으로 천관 제시 - 기존 천관을 포월(包越)
- 동양의 내재천과 서양의 초월천을 종합적으로 융화
- 신명의 청령과 회산이라는 기존 하늘의 개념을 계승 발전

대순사상의 천관이 갖는 의의

- 성-속의 관계 재배치: 일상 속에 성(聖)이 들어옴
- 자생적 탈근대성으로의 전개